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우리나라의 양잠산업

류강선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우리나라의 양잠산업은 일찍이 60년대부터 무역자유화시장에 몸을 던지면서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농촌의 노임이 상승하고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전통적인 실크양잠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실의에 빠져 있을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95년에 과감하게 기능성 양잠산업으로 대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에분말 혈당강하제를 필두로 하여, 누에동충하초, 실크화장품, 뽕잎아이스크림, 누에그라 등 7품목 20여종의 제품이 개발하여 10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양잠산업을 지탱해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양잠농가들의 야심없는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었습니다. 이제 또 한번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시장이 개방되고 건강기능성 관련 제품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어 당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법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양잠산물의 입지 역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요구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화를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안주 할 수 없습니다.

양잠산업은 실크에서 기능성 소재산업으로, 청정누에마을의 공익적 기능을 가미한 환경을 생각하는 양잠산업 그리고 미래의 생명공학 첨단산업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의 소득만을 생각지 않고 도시민을 위한 공익적 기능도 함께 하는 양잠 즉 노인문제의 대안으로 노인에게 소일거리도 제공하고 건강도 증진시켜주는 기능성 양잠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케팅의 전략입니다. 기존의 농업은 다수확 즉 생산을 많이 하는 것이 소득을 증대하는 길이었습니

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마케팅을 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의 판매 전략상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의 차별화입니다. 그리고 개인보다는 마을단위로 단지화, 특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양잠기술을 복원과 튀니지 등에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양잠기술력을 세계 속에 심어주어 우리나라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큰 디딤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양잠산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일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몸으로 거부”하고 싶습니다. 누에가 허물을 벗어가면서 커가듯이 우리나라의 양잠산업도 허물 벗는 누에처럼 늘 새로운 몸가짐으로 미래를 열어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미래의 양잠산업을 위해 파이팅 합시다.